

“특판 없다”... 저축은행, 대출규제에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전국 79개 저축은행 평균금리 인하
가계대출 증가율 21.1% 이내 주문
연말까지 수신금리 인상 어려워

〈시중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추이〉 /각사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9월3일	2.6%	9월18일	2.5%	7월	2.51%
9월17일	2.3%	9월28일	2.3%	8월5일	2.31%

올해 줄곧 상승세를 타던 저축은행 수신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1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예·적금 상품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JT저축은행은 지난 8일 정기예금 금리를 1년 만기 기준 2.5%에서 2.4%로 0.1%포인트 인하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달 3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2.5%로 상향했던 정기예금 금리를 17일부터 2.3%로 낮췄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6월 정기예금 금리를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올린 바 있다. 이후 7월 공모주 슈퍼워크를 맞아 한 차례 더 기본금리 인상을 단행, 2%까지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 왔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정기예금의 금리를 2.5%에서 2.3%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18일 정기예금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 지 열흘 만에 다시 금리를 낮춘 것.

상상인저축은행 역시 지난 7월 온라인 정기예금 상품에 2.51%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8월 들어 2.31%로 0.2%포인트 인하했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평균금리도 소폭 떨어졌다. 이달 들어 2.26%였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정체를 지속하다 지난 8일 2.25%로 0.01%포인트 하락했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던 지난 7~8월 말까지는 하루에 0.01%포인트씩 움직이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업계는 대출규제 강화와 예대율 완화 기간 연장에 따라 예수금을 확보할 필요가 적어지면서 연말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전 업권에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저축은행 업계에 가계대출 총량규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지난해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21.1%를 넘지 않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부터 총량규제 한도를 초과한 업체가 속출하면서 신규 대출을 조이는 추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통상 신규 대출을 내주기 위해 수신액을 확보하지만 지금은 대출이 차고 넘쳐 예금을 쌓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완화 조치가

연장된 것도 예수금 확보 의지를 떨어뜨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저축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의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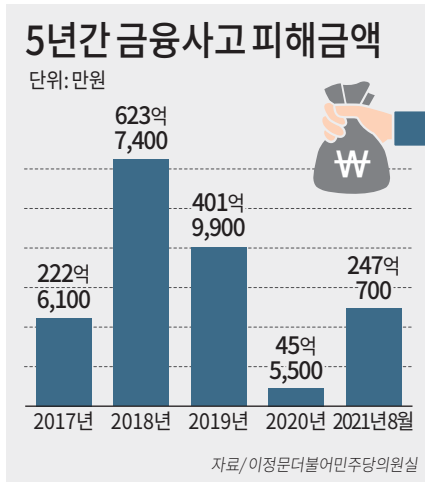
당초 100%로 맞춰야 했던 예대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 100만원의 대출을 내주려면 예수금 100만원을 보유해야 했으나 유동성 비율 10%포인트 이내에서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상 연말에 판매가 늘던 특판상품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수신금리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권소원 기자 think@metroseoul.co.kr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5년간 1540억

지난해 말 대비 5배 이상 증가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되어야
내부감사 미실시한 은행도



올해 8월까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지난해 말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을 명확히 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최근 5년간 177건으로 총 1540억원에 달했다. 특히 금융사고 피해액은 올해 들어 5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이처럼 금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중

은행 20곳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적발한 비율은 평균 23% 수준이다. 농협은행 74%, 기업은행 58%, 우리은행 55%를 제외한 타 시중은행의 경우 20~45%였다.

내부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한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유형은 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로 주식투자를 위해 직원이 본인 및 지인명으로 부당대출을 통해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을 회수하거나 통장 및 신분증을 보관해 고객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해 담보대출 등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통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 없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DGB대구銀, 거래 전반 얼굴인증 서비스

1일 200만원까지 이용 가능

DGB대구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얼굴인증서비스를 실시한다.

DGB대구은행의 얼굴인증서비스는 DGB스마트뱅크 이용 개인 고객이 본인 얼굴 정보를 이용, 로그인 및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 시 얼굴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 기반의 본인 인증 서비스다.

기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패스워드 방식 대신 얼굴인증만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1일 200만원까지는 계좌이체 시 계좌비밀번호와 OTP 등 보안매체 입력없이 얼굴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 얼굴 이미지를 휴대폰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DGB대구은행 서버에 암호화된 데이터로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종류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얼굴인증서비스는 현재 중남미와 유럽 지역의 글로벌 은행 90곳에 공급 중이며 3900만 사용자들이 총 20억건 이상의 얼굴인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이다. 사전 등록된 본인의 얼굴 데이터와 직접 촬영한 본인 얼굴에서 1만 6000여개 특징점을 비교, 검증하는 시



스템으로 셀카 사진 촬영 시 사진이나 동영상 이 아닌 실제 본인 얼굴을 판별하는 라이브리스 기능 적용으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GB대구은행은 얼굴인증서비스와 함께 13일부터 한달 간 얼굴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금융인증서 보유 고객을 포함, 새로운 금융인증서를 신규 발급하고 얼굴인증서비스를 등록한 고객이 대상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LG 그램 노트북 16형 1명 ▲에어팟 프로 5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800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13일 “얼굴인증으로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앞서가는 기술로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IBK기업은행, 상반기 혁신창업기업 모집

3개 센터서 총 55여개 기업 선발

IBK기업은행은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의 2022년 상반기 혁신창업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마포(20개)·구로(20개)·부산(15개) 3개 센터에서 육성할 총 55여개 기업을 최종 선발한다. 모집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1월 16일(14시)까지며 12월 중 최종 선발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은 IBK창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기업 현황을 스스로 점검·분석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와 맞춤형 솔루션 제안, 최신 동향 및 분야별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선발된 기업에게는 내년 1월부터 5개월간 사무 공간, 1대1 전담 멘토링, 투자유치 데모데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우수기업을 선발해 은행의 직접 투자나 은행이 출자한 펀드를 활용한 간접투자 방식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종 선발기업에게 기업 현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IBK는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도입으로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는 육성 플랫폼으로 지난 2017년 12월 IBK창공 마포를 개소한 이후 구로·부산을 포함해 총 3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올해 12월에는 IBK창공 대전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IBK창공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총 369개의 육성기업에 3637억원의 투·융자, 4932여건의 컨설팅, 멘토링 및 투자설명회(IR) 등을 지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하나은행 행복나눔 기부서비스 확대

하나은행이 ‘하나골드클럽 기부서비스’를 VIP클럽 영업점까지 확대개편하고, 서비스명을 ‘하나 행복나눔 기부서비스’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나 행복나눔 기부서비스’는 은행과 거래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은행 수익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하고, 고객이 지정한 공익기관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개편을 통해 기존 24개 PB채널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하나 행복나눔 기부서비스’는 오는 14일부터 전국 208개 PB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확대 개편을 통한 기부금으로 교육, 문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에 앞장서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ESG 경영 실천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우리은행, ‘우리 으쓱 패키지’ 출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수수료 10회 면제

우리은행은 ESG실천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및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과 적금, ‘우리 으쓱(ESG)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 으쓱(ESG) 통장’은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우리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타행 이체수수료도 월 10회 면제혜택을 제공한다.

‘우리 으쓱(ESG) 적금’은 가입기간 1년으로 월 납입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정책적립식 적금이며 기본금리 연 0.

85%에 우대금리 최대 연 0.80%포인트(p)를 더해 최고 1.65%다. 우대금리는 대중교통 이용실적 충족 시 0.4%p, 환경보호 실천운동 달성 시 0.4%p가 제공된다. 자세한 우대혜택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뱅킹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 으쓱(ESG) 패키지’는 종이통장 사용 감소와 ESG 가치경영 실천을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품을 출시해 지속적인 ESG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